

# 기억 지우개

- \* 글 : 박정미
- \* 그림 : 황여진
- \* 펴낸곳 : 단비어린이
- \* 정가 : 12,000원
- \* 분량 : 92쪽
- \* 대상 : 초등학생

## · 책 소개

기웅이는 어느 날 나쁜 기억을 완벽하게 지워 주는 기억 지우개를 만났어요. 기웅이는 날마다 아이들이 쿡쿡 비웃던 일, 단짝 성민이가 서운하게 했던 일, 비상금을 도둑맞은 일 등 안 좋은 기억들을 싹싹 지웠지요. 그런데 나쁜 기억을 지우면 행복해져야 할 텐데, 점점 더 지울 기억만 많아지고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기웅이는 단짝 성민이를 통해 열심히 연습한 덕분에 못 넘었던 뽕들을 넘게 되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만약 뽕들을 못 넘었다고 기억 지우개로 지웠다면 어땠을까요? 때로는 나쁜 기억이 더 멋진 나로 만들어 주는 디딤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기웅이와 함께 나쁜 기억이 정말 나쁘기만 한 것인지 생각해 봐요.

## · 주요 독후활동





# 독서 전

책 미리 보기 : 표지

-책의 앞뒤 표지의 제목, 글귀, 그림을 살펴봅시다.

1. 『기억 지우개』의 표지를 보고 드는 생각과 느낌, 궁금한 점 등을 써 보세요.


2. 『기억 지우개』 뒷표지에 쓰여 있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기웅이는 어느 날  
 나쁜 기억을 완벽하게 지워 주는  
 기억 지우개를 만났어요.  
 아이들이 쿡쿡 비웃던 일,  
 비상금을 도둑맞은 일 등  
 날마다 안 좋은 기억들을 짹짹 지웠지요.  
 그런데 나쁜 기억을 짹짹 지우면 행복하게 될까요?  
 나쁜 기억은 정말 나쁘기만 할까요?

1) 기억 지우개는 어떤 기억을 지워 주는 지우개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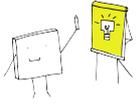
⇒ 나쁜 기억을 지워 준다.

2) 기웅이는 어떤 기억들을 지웠나요?

⇒ 아이들이 쿡쿡 비웃던 일, 비상금을 도둑맞은 일 등을 지웠다.

3) 나에게도 지우고 싶은 기억이 있나요? 어떤 기억인가요?

⇒ 예시 답안) 내가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데, 친구가 뒤에서 쉬운 문제인데 왜 이렇게 못 푸냐고 했다. 그 말을 들은 주변 친구들이 다 나를 쳐다봤다. 그때 속상하고 창피했던 기억을 지우고 싶다.



# 독서 중

국어 교과\_독서 단원 연계 국어사전을 활용하며 읽기

1. 국어사전에서 모르는 낱말을 찾아 가며 책을 읽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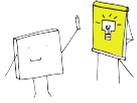
쪽	낱말	사전에서 찾은 뜻

(가이드) 국어사전에서 낱말의 뜻을 찾는 방법

- 첫 번째 글자의 첫 자음자가 같은 낱말들끼리 모여 있다는 걸 알려주세요.
- 첫 자음자를 찾은 뒤에는 모음자의 순서, 그 다음에는 끝 자음자의 순서대로 차례로 찾을 수 있다는 걸 알려 주세요.
- 모양이 바뀌는 낱말은 기본형으로 찾아야 한다는 걸 알려주세요.

2. 밑줄 친 단어와 뜻을 바르게 연결해 보세요.

- |        |   |   |                                |
|--------|---|---|--------------------------------|
| 어리병병하다 | · | · | 불만을 길게 늘어놓으며 하소연하다.            |
| 넋두리하다  | · | · | 목소리가 자꾸 크고 높게 울리는 소리. 또는 그 모양. |
| 쩌렁쩌렁   | · | · | 어리둥절하여 갈피를 잡을 수 없다.            |
| 뿌루통하다  | · | · | 불만스럽거나 못마땅하여 성난 빛이 얼굴에 나타나 있다. |



## 독서 후 책 속으로\_ ① 기억 지우개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짜증 많이 났지? 오늘 말이야. 이제부터 내가 다 없애 줄게! 확. 실. 하. 게.”

기웅이는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았다. 깜장 몰랑이는 이때다 싶었는지 재빨리 말을 이었다.

“그렇게 놀란 눈으로 보지 말라고. 난 기억 지우개야. 친구.”

“뭐, 기억 지우개?”

기웅이는 몰랑몰랑한 깜장 고무 이야기에 금방이라도 눈이 튀어나올 것 같았다.

“”

(나) 기웅이는 다시 연습장을 펼쳤다. 그리고는 지우고 싶은 기억을 적기 시작했다. 하준이가 빈정대며 말했던 것, 아이들이 수군대며 깔깔거린 일 그리고 성민이가 서운하게 했던 일까지 모두 적었다.

그런데 생각의 꼬리가 성민이에 머물자 기웅이는 왈칵 짜증이 치밀었다. 기웅이는 성민이를 마음을 나누는 제일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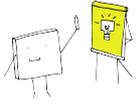
며칠 전 성민이와 타임캡슐을 함께 묻기로 했었다. 찢힌 우정을 다지며. 타임캡슐에 서로가 가장 아끼는 물건을 넣고 10년 뒤 같이 꺼내 보기로 약속했다. 성민이에게 서운함이 몰려들자 기웅이는 타임캡슐에 대한 기억까지 적었다.

1. (가)에서 기억 지우개는 뭐라고 자기소개를 했을까요? 기억 지우개가 되어  안에 들어갈 말을 채워 보세요.

2. (나)에서 기웅이는 어떤 기억을 지웠나요? 빈칸을 채워 보세요.

나쁜 기억	좋은 기억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3. 기웅이는 왜 좋은 기억까지 지워 버렸을까요?



## 독서 후 책 속으로\_ ② 정말 기억이 안 난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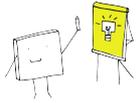
※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화 많이 났지? 누나에게 말이야. 좋은 기회야. 그 기억도 다 없애 버리자. 엄마에게 화났던 기억도 같이.”  
 기억 지우개가 슬그머니 말을 붙였다.  
 “그럼 비상금은 어떻게 찾아?”  
 기웅이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다.  
 “무슨 소리야? 그깟 비상금이 중요해? 비상금은 다시 모으면 돼. 하지만 지금 네 편이 누가 있냐? 잘 생각해 봐. 네 옆에서 나쁜 기억을 모두 없애 주는 나! 내가 유일한 네 편이라고.”  
 (나) “아빠가 여러 번 전화했어. 기웅이 말을 찬찬히 들어 주지 못해 진짜 미안하다고 말이야.”  
 “네, 뭐가요?”  
 기웅이는 엄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엄마도 이상한 눈초리로 기웅이를 보았다.  
 “정말 몰라서 묻는 건 아니지?”  
 엄마가 기웅이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기웅이는 눈을 피륙거리며 생각했다. 하지만 도무지 생각나지 않았다.

1. (가)에서 기웅이는 어떤 기억을 지웠을까요?
2. 기억 지우개를 사용한 기웅이는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점이 불편했나요?

좋은 점	불편한 점

3. 만약 내가 기웅이었다면 기억 지우개를 사용했을 것 같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독서 후 책 속으로\_ ③ 누나가 이상해

※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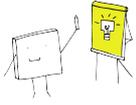
(가) 누나는 학교 뒤 놀이터로 가고 있었다. 전봇대에 몸을 숨기고 누나를 보았다. 누나가 놀이터 정글짐으로 다가서자 누나 또래의 서너 명의 여자아이가 누나를 에워쌌다. 기웅이는 깜짝 놀라 휴대 전화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머리가 하얘지더니 가슴만 쿵쿵 뛰었다. 그때 한 아이가 누나를 정글짐으로 세계 밀어붙이고는 무어라 말했다. 누나는 그저 힘없이 당하고 있는 듯 보였고 이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건넸다. 그것을 본 기웅이 눈이 왕방울처럼 커졌다. 누나가 건넨 건 다름 아닌 돈이었다.

(나) “난 누나처럼 당하고 있지 않아! 끝까지 싸울 거야. 만약 내가 싸움에 지면 그딴 나쁜 기억은 싹 다 지워 버리면 그만이니깐!”

기웅이는 자신 있게 큰소리쳤다.

“뭐라고? 나쁜 기억을 싹 지운다고? 그런 방법은 없어. 혹시 있다고 해도 그것도 네 기억인데 그걸 왜 지우니?”

1. 아영이 누나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나요?
2. 누나는 왜 나쁜 기억을 지우지 않겠다고 말했나요?
3. 기억 지우개를 사용하지 않고, 누나를 도울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을 알려 주세요.



## 독서 후 책 속으로\_ ④ 나쁜 기억도 기억이야

※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정말 너무한다! 요즘 넌 내가 알던 민기웅이 아닌 것 같아.”

성민이가 목청을 높였다.

“무슨 소리야? 나는 나! 민기웅이 틀림없어!”

기웅이가 큰소리 뽕뽕 쳤다. 하지만 성민이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다.

“그런데 왜 난 네가 꼭 다른 아이 같을까? 하준이하고 다툰 일 말이야. 다른 때 같았으면 나한테 이려고저려고 막 떠들어 댔을 거야. 그렇지?”

성민이가 묻는 말에 기웅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전에도 화나는 일이 있으면 성민이에게 달려가 화가 풀릴 때까지 종알거렸다. 그렇게 하고 나면 거짓말처럼 마음이 누그러졌다.

“그런데 넌 지금 그 일을 기억도 못 하고……. 요즘 들어 멍하니 있거나 자주 헤헤거린다는 거 아냐? 꼭 나사 하나 빠진 로봇 같아.”

(나) “만약, 만약에 말이야. 너한테 나쁜 기억을 모두 지워 준다고 하면 넌 망설이지 않고 그 기억을 다 지울 거야?”

기웅이의 물음에 성민이는 생똥맞다는 듯 바라보았다.

“나에게 나쁜 기억은 엄마 아빠 일이야. 그때는 정말 엄마도 아빠도 모두 보기 싫고 미웠어.”

성민이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기웅이는 괜스레 아픈 기억을 건드린 것 같아 미안했다. 기웅이도 성민이의 사정을 대강 알고 있었다. 성민이는 작년에 엄마 아빠가 헤어진 후로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다. 그런데도 남들 앞에서는 구김살 없이 행동해서 다른 친구들은 모르는 이야기였다.

“그런데 말이야. 지금은 귀찮기만 했던 엄마의 잔소리도 또 아빠의 큰 목소리도 다 그리워. 그때는 정말 싫고 또 지우고만 싶었던 기억들이었는데……. 지금은 자꾸 생각나고 그럽기만 해.”

1. 기억 지우개를 만나기 전에 기웅이는 나쁜 기억이 생기면 어떻게 했나요?
2. 나에게도 속상한 일이 생기면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방법이 있나요?
3. 성민이의 나쁜 기억은 무엇인가요?
4. 성민이는 왜 나쁜 기억을 지우지 않겠다고 했나요?



## 독서 후 책 속으로\_ ⑤ 다 나쁜 건 아니야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너, 예전 체육 시간에 뽀틀 넘었던 것 기억나?”

성민이 입가에 살짝 웃음이 물렸다.

“응. 그때 정말 힘들었어.”

기웅이도 그때 일을 생각하자 살며시 웃음이 번졌다.

작년 체육 시간이었다. 뽀틀 높이가 높아질 때마다 두려움도 같이 높아졌다. 다른 아이들은 모두 잘 뛰어넘었다.

기웅이 차례가 되었다. 몇 번을 시도해도 그 앞에만 서면 못 뛰어넘고, 넘어지고 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귓가를 울렸다. 기웅이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체육시간만 되면 주눅이 들었다. 그런 기웅이 마음을 성민이가 다독겨려 주었다.

“뽀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같이 연습하자. 힘내!”

시무룩한 기웅이를 본 성민이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 기웅이는 가슴이 찌르르 울렸다.

그런데 그때 힘들었던 기억이 지금은 생각만으로도 빙긋 웃음이 지어졌다. 분명 창피하고 속상한 일이었는데 말이다.

그때 만약 기억 지우개를 만났더라면 분명 지우고 또 지웠을 일이었다.

“열심히 연습한 덕분에 뽀틀을 넘었잖아. 그때 포기했다면 어땠을 것 같냐?”

분명 그때는 힘들고 나쁜 기억이었지만 지금은 웃음이 물리는 가슴 뿌듯한 기억이었다.

“어렵고 힘들다고 모든 걸 다 피해 가려고만 한다면 어땠겠어? 아마 지금처럼 뽀틀 잘 넘는 민기웅은 없겠지. 하하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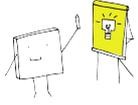
1. 기웅이는 힘들었던 뽀틀 넘기를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웃을 수 있었나요?

뽀틀 넘기가 힘든 기억이 된 이유	뽀틀 넘기가 좋은 기억이 된 이유

2. 만약 기웅이가 뽀틀에 관한 기억을 기억 지우개로 지웠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상해서 빈칸을 채워 보세요.

뽀틀을 넘지 못하고, 친구들이 놀렸던 일들을 기억 지우개로 지워 버렸다.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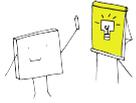
## 독서 후 창의융합\_ ② 기억 인터뷰

※ 친구들과 함께 서로의 기억을 인터뷰해 보세요.

인터뷰 대상	
가장 즐거웠던 기억은 무엇인가요?	
가장 힘들었던 기억은 무엇인가요?	
힘들었던 일이 지금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나요?	

인터뷰 대상	
가장 즐거웠던 기억은 무엇인가요?	
가장 힘들었던 기억은 무엇인가요?	
힘들었던 일이 지금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나요?	

인터뷰 대상	
가장 즐거웠던 기억은 무엇인가요?	
가장 힘들었던 기억은 무엇인가요?	
힘들었던 일이 지금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나요?	



## 정답과 해설(예시 답안)

2쪽	<p>1. 예) 기억 지우개는 기억을 지워 주는 지우개일까?          예) 표지 속 아이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예) 기쁜 기억이 지워지면 슬플 거 같은데?</p> <p>2.          1) 나쁜 기억을 지워 준다.          2) 아이들이 쿡쿡 비웃던 일, 비상금을 도둑맞은 일 등을 지웠다.          3) 예시 답안) 내가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데, 친구가 뒤에서 쉬운 문제인데 왜 이렇게 못 푸냐고 했다. 그 말을 들은 주변 친구들이 다 나를 쳐다봤다. 그때 속상하고 창피했던 기억을 지우고 싶다.</p>																		
3쪽	<p>1. 예시 답안)</p> <table border="1" data-bbox="268 770 1353 1093"> <thead> <tr> <th>쪽</th> <th>낱말</th> <th>사전에서 찾은 뜻</th> </tr> </thead> <tbody> <tr> <td>9쪽</td> <td>부러</td> <td>실없이 거짓으로.</td> </tr> <tr> <td>10쪽</td> <td>울화</td> <td>마음속이 답답하여 일어나는 화.</td> </tr> <tr> <td>16쪽</td> <td>통방울</td> <td>품질이 낮은 놋쇠로 만든 방울.</td> </tr> <tr> <td>28쪽</td> <td>우쭐거리다</td> <td>의기양양하여 자꾸 뽐내다.</td> </tr> <tr> <td>47쪽</td> <td>퇴록거리다</td> <td>크고 동그란 눈알이 힘 있게 움직이다.</td> </tr> </tbody> </table> <p>2. 불만을 길게 늘어놓으며 하소연하다. (뉘뉘리하다)          목소리가 자꾸 크고 높게 울리는 소리. 또는 그 모양. (찌렁찌렁)          리동절하여 갈피를 잡을 수 없다. (어리병병하다)          불만스럽거나 못마땅하여 성난 빛이 얼굴에 나타나 있다. (뿌루통하다)</p>	쪽	낱말	사전에서 찾은 뜻	9쪽	부러	실없이 거짓으로.	10쪽	울화	마음속이 답답하여 일어나는 화.	16쪽	통방울	품질이 낮은 놋쇠로 만든 방울.	28쪽	우쭐거리다	의기양양하여 자꾸 뽐내다.	47쪽	퇴록거리다	크고 동그란 눈알이 힘 있게 움직이다.
쪽	낱말	사전에서 찾은 뜻																	
9쪽	부러	실없이 거짓으로.																	
10쪽	울화	마음속이 답답하여 일어나는 화.																	
16쪽	통방울	품질이 낮은 놋쇠로 만든 방울.																	
28쪽	우쭐거리다	의기양양하여 자꾸 뽐내다.																	
47쪽	퇴록거리다	크고 동그란 눈알이 힘 있게 움직이다.																	
4쪽	<p>1. 예시 답안) 난 나쁜 기억을 모조리 없앨 수 있어. 정말 까맣게 잊도록 도와줄 수 있지.</p> <p>2.</p> <table border="1" data-bbox="280 1373 1394 1525"> <thead> <tr> <th>나쁜 기억</th> <th>좋은 기억</th> </tr> </thead> <tbody> <tr> <td>⇒ 하준이가 빈정대며 말했던 것, 아이들이 수군대며 깔깔거린 일, 성민이가 서운하게 했던 일.</td> <td>⇒ 성민이와 함께 타임캡슐을 묻기로 한 일.</td> </tr> </tbody> </table> <p>3. 성민이에게 서운한 마음이 커서, 함께하기로 한 일까지 지워 버리고 말았다.</p>	나쁜 기억	좋은 기억	⇒ 하준이가 빈정대며 말했던 것, 아이들이 수군대며 깔깔거린 일, 성민이가 서운하게 했던 일.	⇒ 성민이와 함께 타임캡슐을 묻기로 한 일.														
나쁜 기억	좋은 기억																		
⇒ 하준이가 빈정대며 말했던 것, 아이들이 수군대며 깔깔거린 일, 성민이가 서운하게 했던 일.	⇒ 성민이와 함께 타임캡슐을 묻기로 한 일.																		
5쪽	<p>1. 누나와 엄마에게 화난 일과 비상금 때문에 벌어진 모든 일들을 지웠다.</p> <p>2.</p> <table border="1" data-bbox="280 1700 1401 1807"> <thead> <tr> <th>좋은 점</th> <th>불편한 점</th> </tr> </thead> <tbody> <tr> <td>⇒ 기억을 지우니 화낼 일이 없어졌다.</td> <td>⇒ 기억을 잃어 버려 다른 사람과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td> </tr> </tbody> </table> <p>3. (예시 답안) 사용했을 것 같다. 억울한 마음으로 계속 누나와 엄마를 미워하는 것보다 잘 지내고 싶은 마음에 사용했을 것 같다.</p>	좋은 점	불편한 점	⇒ 기억을 지우니 화낼 일이 없어졌다.	⇒ 기억을 잃어 버려 다른 사람과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														
좋은 점	불편한 점																		
⇒ 기억을 지우니 화낼 일이 없어졌다.	⇒ 기억을 잃어 버려 다른 사람과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																		
6쪽	<p>1.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돈까지 빼앗기고 있었다.</p>																		

	<p>2. 나쁜 기억도 전부 자기 기억이기 때문에 지우지 않겠다고 했다.</p> <p>3. (예시 답안) 맞거나 돈을 빼앗는 건 학교 폭력이기 때문에 신고를 해야 한다. 엄마와 선생님께 알리고, 성민이와 함께 ‘누나 지킴이’가 되어서 누나와 함께 다니며 누나를 지켜 주면 좋을 것 같다.</p>								
7쪽	<p>1. 성민이에게 달려가 화가 풀릴 때까지 종알거렸다.</p> <p>2. (예시 답안) 한참 울고, 친구들에게 이야기한다, 노래를 부른다, 음악을 듣거나 춤을 춘다 등</p> <p>3. 엄마 아빠의 일.</p> <p>4. 엄마 아빠와 헤어져서 살다보니 나뻐던 기억조차 그리워졌다.</p>								
8쪽	<p>1.</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fff9c4;">뽕틀 넘기가 힘든 기억이 된 이유</th> <th style="background-color: #fff9c4;">뽕틀 넘기가 좋은 기억이 된 이유</th> </tr> </thead> <tbody> <tr> <td style="color: red;">⇨ 뽕틀을 잘 넘지 못해서 주눅이 들었고, 아이들이 놀렸다.</td> <td style="color: red;">⇨ 성민이가 응원해 주었고, 덕분에 열심히 연습해서 결국 뽕틀을 넘을 수 있게 되었다.</td> </tr> </tbody> </table> <p>2. (예시 답안) 힘든 기억이 사라지자, 뽕틀을 넘고 싶다는 마음도 없어졌다. 그래서 연습을 하지 않았다. 결국 뽕틀을 넘는 성취감을 느끼지 못했고, 성민이와의 추억도 사라졌다.</p>	뽕틀 넘기가 힘든 기억이 된 이유	뽕틀 넘기가 좋은 기억이 된 이유	⇨ 뽕틀을 잘 넘지 못해서 주눅이 들었고, 아이들이 놀렸다.	⇨ 성민이가 응원해 주었고, 덕분에 열심히 연습해서 결국 뽕틀을 넘을 수 있게 되었다.				
뽕틀 넘기가 힘든 기억이 된 이유	뽕틀 넘기가 좋은 기억이 된 이유								
⇨ 뽕틀을 잘 넘지 못해서 주눅이 들었고, 아이들이 놀렸다.	⇨ 성민이가 응원해 주었고, 덕분에 열심히 연습해서 결국 뽕틀을 넘을 수 있게 되었다.								
9쪽	<p>1. (예시 답안)</p> <p>기웅이에게, 안녕 기웅아, 나는 ***야. 먼저 기억 지우개를 버리기로 한 거 축하해. 정말 잘했어. 나에게도 나쁜 기억들이 있어. 내가 어릴 때부터 키우던 강아지가 하늘나라에 갔거든. 정말 슬퍼서 그 기억이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강아지 기억이 없어지면, 함께했던 추억들이 모두 사라져 버리잖아. 그래서 마음은 아프지만 기억을 간직하고 싶어. 너에게도 분명 슬프고 힘든 일들이 생길 거고, 지우고 싶은 기억도 생길 테지만, 분명 그 기억들이 거름이 되어서 더 멋지게 성장할 수 있을 거야. 응원할게! 파이팅!</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 ***가</p>								
10쪽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background-color: #f2f2f2;">인터뷰 대상</td> <td style="color: red;">예시 답안) 이솔이</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f2f2f2;">가장 즐거웠던 기억은 무엇인가요?</td> <td style="color: red;">엄마 아빠와 함께 생일 파티 했던 기억.</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f2f2f2;">가장 힘들었던 기억은 무엇인가요?</td> <td style="color: red;">엄마가 사준 키보드를 잃어버렸을 때 가장 슬펐다.</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f2f2f2;">힘들었던 일이 지금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나요?</td> <td style="color: red;">물건을 소중히 다뤄야 한다는 걸 깨달을 수 있었다.</td> </tr> </table>	인터뷰 대상	예시 답안) 이솔이	가장 즐거웠던 기억은 무엇인가요?	엄마 아빠와 함께 생일 파티 했던 기억.	가장 힘들었던 기억은 무엇인가요?	엄마가 사준 키보드를 잃어버렸을 때 가장 슬펐다.	힘들었던 일이 지금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나요?	물건을 소중히 다뤄야 한다는 걸 깨달을 수 있었다.
인터뷰 대상	예시 답안) 이솔이								
가장 즐거웠던 기억은 무엇인가요?	엄마 아빠와 함께 생일 파티 했던 기억.								
가장 힘들었던 기억은 무엇인가요?	엄마가 사준 키보드를 잃어버렸을 때 가장 슬펐다.								
힘들었던 일이 지금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나요?	물건을 소중히 다뤄야 한다는 걸 깨달을 수 있었다.								